

4대 종단,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적극 동참

전주시,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대 종단은 종교시설 유류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종교행사 운영 시 일회용품과 전력소비를 최소화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시는 8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추이엽 전주시기독교총연합회장, 우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사회국장, 김희태 천주교 전주교구 총대리, 한은숙 원불교 전북교구장 등 주요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한 가운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4대 종단이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성사됐다.

4대 종단은 △종교시설 유류부지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 △종교행사 시 전력소비 최소화하기 △종교시설 냉·난방 효율 높이기 △종교행사 참여 시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분리



전주시는 8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추이엽 전주시기독교총연합회장, 우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사회국장, 김희태 천주교 전주교구 총대리, 한은숙 원불교 전북교구장 등 주요 4대 종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출 생활화하기 △탄소중립 확산 홍보하기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시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북은행·농협 등 금융권과 '2050 탄소중립' 릴레이 협약을 시작한 시는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 청소년·노인복지기관, 전주시사회적

경제기업협의회, 전주시 상인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했다.

추이엽 전주시기독교총연합회장은 "전주지역 교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천 운동에 더욱 동참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

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사회국장은 "각 교구마다 탄소중립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불교 환경운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교계에서는 유류지에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것은 물론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태 천주교 전주교구 총대리는 "천주교 또한 각 교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선언을 진행하고, 교구에 생태환경위원회를 조직해 환경 지키기 활동을 본격화했다"면서 "전주교구에서도 시와 협력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숙 원불교 전북교구장은 "현재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만큼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예전부터 환경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온 원불교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시장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생활 속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4대 종단에서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준다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 발짝 먼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보훈요양원' 내년 3월말 개원

전북 첫 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우선 대상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은 2022년 3월말 전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8번째로 문을 여는 전주보훈요양원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921번지 일원 부지(14,033㎡)에 연면적 9,758㎡(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복권기금 350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다.

전주보훈요양원은 ▲장기보호 200명, 주·야간보호 25명 입소 ▲거실을 중심으로 20인 이하가 생활하는 소규모 유니트 운영 ▲전문 재활치료 ▲대지면적 31%인 녹지 공간 ▲보행 보조 장치, 정보통신 기술 인지치료 등 선진 장비 구축 ▲전문 급식업체 운영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

박진기 개원준비단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설 등급을



판정받은 고품질의 국가유공자와 유족, 배우자와 지역주민이 입소 가능하며 국가유공자가 우선 대상"이며, "입소자를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 존중하는 휴머니티드케어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주보훈요양원은 내년 2월까지 1차 입소자를 모집하며 입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원준비단 대표번호(063-220-0777) 및 홈페이지(jicare.bohu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도로제설대책' 본격 가동

전주시,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해 15일부터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겨울철 강설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설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을 시작하는 등 한층 강화된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마련되는 상황실에서는 도로분야 자연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시간 기상상황 확인, 비상연락체계별 상황보고, 피해발생 시 즉시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연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제의 경우 장기간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평균 사용량의 200%에 해당하는 2000톤을 확보했다.

시는 또 도로 제설노선을 기존 536km에서 587km로 확대했으며, 이를 위한 제설차량 5대를 추가 입차했다. 여기에 15톤 트럭 1대를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에 추가 배치했으며, 취약지역과 신도시 위주로 기존보다 살수차 4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제설 취약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예수병원 등 15개소에 제설용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던 월드컵 지하차도에는



열선을 설치해 총 14군데에서 열선을 가동하게 됐다.

아울러 시는 교량, 터널 등 상습결빙 구간의 블랙아이스 제거를 위한 사전 살포도 시간대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상예보 6시간 전 제설작업 여부에 대한 상황판단에 나선 뒤 4시간 전 취약구간에 대한 사전살포를 추진해 3시간 전까지 적설을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7cm 이상 폭설 시에는 전 직원이 동원돼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나서게 되며, 주요 교차로에는 프리몰기 방자를 위한 모범운전자협회 인력도 배치된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강설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와 대비해 보다 강화된 제설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자동차 체인 등 동동장비를 확보하고 강설 시 장차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제9회 청소년 힐링 작은 음악회 유튜브 생중계

전주시·덕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경연대회·특별공연 등 진행

전주시와 덕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안이순)은 지난 6일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9회 청소년 힐링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시간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끼와 열정을 뽐낼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행사는 댄스·보컬·비보이·힙합 등 청소년 문화경연대회, 특별공연,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유채빈 학생은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의 무대가 줄어들어 아쉬웠는데 청소년 힐링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작은 음악회를 통해 친구들과의 소통을 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 학교 폭력 예방 측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안이순 관장은 "올해에는 온라인 문화경연대회로 개최된 만큼 많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문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썼다"면서 "이번 작은 음악회에 참여한 청소년 모두가 참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한 문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물왕말 마을공동체, 천사김치 체험축제 개최

김장담그기 체험행사 갖고 노송동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

물왕말 '착한농부'들이 겨울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는 장을 열었다.

전주시 노송동 지역 물왕말 마을공동체(대표 조은식)는 지난 6~8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직접 재배한 마을텃밭 수확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나누는 '물왕말 천사김치 체험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심 속 친환경 마을자산을 갖고 있는 물왕말 지역을 홍보하고, 김치 나눔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공동체 회원들은 첫째 날 재료손질,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를 진행한 뒤 둘째날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공연과 가족단위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를 갖고 노송동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마지막 날에는 라이브카머스 행사를 통해 물왕말 마을을 알리고 김장 레시피를 홍보하는 등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윤상 기자



조은식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왕말 마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선정된 물왕말 마을공동체는 '도시는 시집이다'라는 마을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올레길 조성, 마을장터 및 축제활성화, 마을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교육 등을 추진하며 마을 분위기를 쇠퇴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